

탐심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다. 십계명의 제2 계명뿐만 아니라 제1 계명도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이란 마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제2 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은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해와 달처럼 물리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나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신이라 믿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형상이 다 우상일 수는 없다. 동상, 조각품, 인형, 초상화가 다 우상이라 하지는 않는다.

우상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격화해야 한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 낸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전 8:4) 했다. 이교

도들이 신이라고 믿는 '우상'들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에게 바쳤던 제물이라 하여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다. 반면에 형상이 없는 이념이나 가치라도 그것들을 신처럼 믿고 숭배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다. 우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각하거나 만든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가? 바울은 로마서 1:21에서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성경적 인간관에서는 잘못된 판단은 결코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상을 만들 정도로 잘못된 판단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특성은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2에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라 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적이고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대신 다른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며 자신을 구원한다고 판단하므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가 하나 필요하다. 하나님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가짜 절대'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5와 골로새서 3:5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다. 예수님도 마 6:24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심으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주로 돈 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 한다(F. F. Bruce). 그리스도의 자리에 재물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고 심각하게 재물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온 사회가 돈에 의하여, 돈을 위하여 움직이는 돈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로 등극한 것이다. 선거에 당선 되려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처럼 "바보야! 역시 경제야!" (Stupid, it's economy!)란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돈에 미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극복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참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 교회라야 돈에 미친 사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고칠 수 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견제세

력이 없어진 자본주의는 전 인류를 위협으로 몰고 있다. 옥스팜(Oxfam)에 의하면 조만간 인류의 1%가 모든 부의 99%를 소유할 것이라 한다. 이미 거의 모든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교회조차도 돈의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상하게도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 교회 일반이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이익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해가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면 감행하는 것이다. 대형 버스를 몰고 온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교인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궁궐같이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두 교회가 서로 마주대고 서 있는 것,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부정을 저지른 사기꾼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게는 욕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 우상'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탐심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음흉하게 표현하는 전략적 산물이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함으로써 집단적 탐심을 '하나님의 이익'으로 위장할 수 있고 개인들의 노골적인 탐심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데 돈과 '우리 교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개혁될 수 없다. 